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8)

“지장보살 닦고 싶었어요...”

재소자들의 어머니 안청정행 보살



안효진 보살은 ... 1919년 출생, 1970년 군부대를 비롯한 각 교도소에 위문품을 전달하다 1972년 본격적으로 교화활동에 나섰다. 이후 40여 년 동안 포교활동에 전념했다. 이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효진 보살은 6년 전 현장을 떠났지만, 지금까지도 재소자들의 '어머니'로 불리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다. 범명 안청정행 보살로 유명하다.

《홍부전》은 불교의 인과(因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고전소설 중 하나다. 놀부가 박을 탈 때마다 도깨비들은 조상이 저지른 죄값까지 놀부가 치르게 했다. 불교에서는 악한 행위를 많이 하면 업보에 따라 동물이나 벌레로 태어난다고 한다. 또 사악한 일을 많이 저지른 무지한 중생들은 지옥에 가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그렇게 무지한 중생들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윤회(輪廻)한다.

지장보살은 이렇게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직접 지옥에 들어가 그들을 제도했다. 지장보살은 부처님께 서원했다. “지옥이 텅 비지 않는다면 성불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육도(六道)의 중생이 모두 제도되면 그때 깨달음을 이루겠습니다.”

망백(望百)을 넘어 백세(百歲)를 바라보는 안효진(93·청정행) 보살은 자신도 지장보살의 삶을 닦고 싶다고 말했다. 안청정행 보살로 알려진 그는 93세라는 나이가 믿겨지지 않을 만큼 아이처럼 무척이나 고운 피부와 갖고 있었다. 피부가 정말 곱다는 말에 안 보살은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 그래요”라고 낭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말투 역시 또렷했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아마도 걸리는 게 없어 그런 것 같아요. 더 살고자 하는 욕심도, 몸을 건강히 유지해야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그저 사는 대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비워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건강히 지내요.”

안 보살은 40여 년이 넘게 교도소 문턱이 달도록 드나들며, 재소자 교화활동에 힘써왔다. 안 보살은 ‘죄인’이라는 명목아래 아무도 관심 가져 주지 않는 수인들의 ‘엄마’로 반평생을 살아왔다.

“선물을 췌어요. 어느 날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 작은 나뭇가지 조각 여러 개를 제 앞에 두고 사라져 갔어요. 그런데 나뭇가지 조각들이 글자로 변하더군요. 지금 생각해 보니 글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이후로 봉사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죠.”

1970년대. 불교계 안에서 봉사는 매우 낮은 이방인이었다. 봉사의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 안 보살은 작은 녹음기와 확성기, 카세트를 걸방에 넣어 돌려 메꾼 영등포 교도소로 향했다.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교도소의 벽을 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교도관들에게 몇 번을 사정하고 졸랐다. 쫓아내도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또 찾아와 재소자들을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불교에 대해 더 무지했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한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하지만 재소자들에게 불법(佛法) 전하곤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그녀는 교도소에 출입했다. 교도관은 안 보살의 고집에 못 이겨 제대로 된 명석을 깔아줬다. 전제 강당에 재소자들을 다 모아놓고 안 보살이 법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하지만 교도소를 방문한 첫 날의 성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당시 교도소 환경이 열악해 마이크와 제대로 된 음향시설이 없어 법문을 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안 보살의 포교활동은 그 때

부터 점차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안 보살은 영등포 교도소를 시작으로 전국 40여 교도소를 다녔다. 또 병원, 군법당, 공장 등 자신의 손길을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마다않고 달려갔다.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니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않았어요. 스님도 없이 여자 혼자서 봉사활동도 하고, 법문도 하러 다니니까 처음엔 욕도 많이 먹었어요.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해서 불교계 지원도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히려 오히려 불교가 더 인색했죠.”

봉사활동을 다니는 곳이 많아보니 수중의 돈은 항상 부족했다. 그럴 때 마다 절을 돌아다니며 지원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안 보살은 포기하지 않았다. 교회, 양장점, 가정집을 돌며 헌옷을 주워 매일 밤이면 옷들을 세탁하고 새벽까지 바느질을 했다.

“아이들이 매일 쓰레기를 주워온다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모두 잠들었을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바느질을 했어요.”

40년 전, 교도소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 안

40년간 수인들의 '엄마'로 기복신앙 거부한 청정행 '싸움꾼'

불법 전하기 위해 영등포 교도소 등 전국 40여 개 교도소 돌며 포교

교회·양장점에서 헌옷 주워

항상 배고픔에 시달리면서도 봉사활동 포기하지 않아

보살은 겨울에 지푸라기만 깔고 자는 재소자들이 동상에 걸려 고생하는 모습이 내내 마음에 거렸다. 한 옷들을 조각내 재소자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양말과 내의 등을 만들었다. 또 출소자가 입을 옷이 마땅치 않을 때도 옷을 개조해 그들이 입고 나갈 옷들을 만들었다. 가위질을 오래 해 구부러진 그녀의 오른쪽 종지는 그간의 보살행을 대변해 주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빴다. 하루 두 세곳의 교도소를 돌며 법회를 열고 재소자들의 간식을 챙겼다. 지방이라도 다녀와야 하는 날에는 동트기 전 새벽에 집을 나와 하루 종일 교도소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밤도 굶는 일이 다반사였다. 밥술에 밥을 도시락에 담은 시간도 없어, 비닐봉지에 한 줌을 담아가면 그것으로 하루종일 배고픔을 달래야 했다. 그마저도 밥을 싸지 못하는 날에는 그냥 굶어야 했다. 하지만 몸이 아파도 그녀는 교도소 방문을 빠뜨리지 않았다.

“지금도 교도소에서 밥도 주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식사는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재소자들 간식 챙겨주고 법문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가버리죠. 배가 너무 고파서 집에 돌아오

다 길거리에 주저앉은 적이 여러 번 이에요. 그럴 때는 심호흡을 크게 여러 번 내쉬면서 배고픔을 달랬죠. 아픈 날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진통제 먹고 그 다음날 또 교도소로 향했죠.”

혹시나 사람들이 준 보시금으로 혼자서 배불리 먹고 잘지낸다고 손가락질 할까봐 우유한잔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포장마차에 파는 감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함부로 사먹지 못했다. 주린 배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하지만 안 보살은 자신의 생활에 대해 불평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안 보살의 식사를 걱정하며 도와주는 이들도 늘어났다. 안 보살은 자신의 진심이 통하고, 마음을 알아주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행복함을 느꼈다. 그럴수록 안 보살은 더욱 더 자신을 점검했다.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스스로 돌아보며 부처님께 물었어요. ‘부처님 제가 제대로 봉사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라고요. 제가 정말 위선자인지 아닌지 점검했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건, 부처님 법이 앞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옆을 두들기며 제 자신을 흔들고 시험했어도 절대 앞을 치며 정법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안 보살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더욱 불법에 갈증을 느꼈다. 제대로 된 부처님 법을 알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여러 절을 찾아다니며 스님들을 만나 법을 구했지만 허탕 치기 일쑤였다. 오히려 스님이나 신도들과 싸우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녀는 싸움꾼이었다. 울지 못하고, 이치를 거스르는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스님들도 제대로 된 불법을 신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녀는 신랄하게 비판했다.

“불교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은 없었지만,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법문은 신도들을 현혹시키는 기복신앙에 불과했어요. 스님들께 그건 부처님 진리가 아니라고 대드니, 신도들이 저를 가만히 뒀습니까. 쫓겨나기 일쑤였죠. 스님들은 시주 많이 하는 신도들만 챙기고, 신도들은 스님들께 술이나 사다 바치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어딜 가나 저는 환영받지 못했죠.”

그녀의 방 한 쪽 벽엔 표장장과 함께 청담 스님, 광덕 스님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안 보살은 “청담 스님과 광덕 스님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님들이다”라며 “두 분에게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특히 광덕 스님은 안 보살이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지원활동을 해주셨다. 하지만 두 스님들에게만 불법을 의지할 수는 없었다. 안 보살은 스님들께 불법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기도에 들어갔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중생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일러 주려고 하셨습니까?”라고 발원한 뒤 100일 동안 기도했어요. 100일 기도가 끝나는 날 정말 신기하게도 제 귀가에 어떤 소리들이 들렸어요.”

그녀는 작은 가방에서 비닐 봉투에 꼭꼭 싸아둔 종이 한 장을 펼쳐보았다. 그 종이에에는 당시 안 보살이 깨우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맞춤법도 틀리고, 글씨체도 예쁘지 않았지만 종이에에는 그녀가 정성스레 한 자 한 자 써내려간 글자들이 담겨있었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충청도 : 010-8674-2357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

Advertisement for Buddhist books including '風水總論' (Feng Shui General Theory) and '회전목마 위의 서민경제' (Economic of the Common People on the Roundabout). It lists authors like 아이크 정 안형렬 and prices like 40,000 won.

30년 전통의 제조명가에서 제조하는 수공예 불교 은제품 건강과 믿음을 위한 여러분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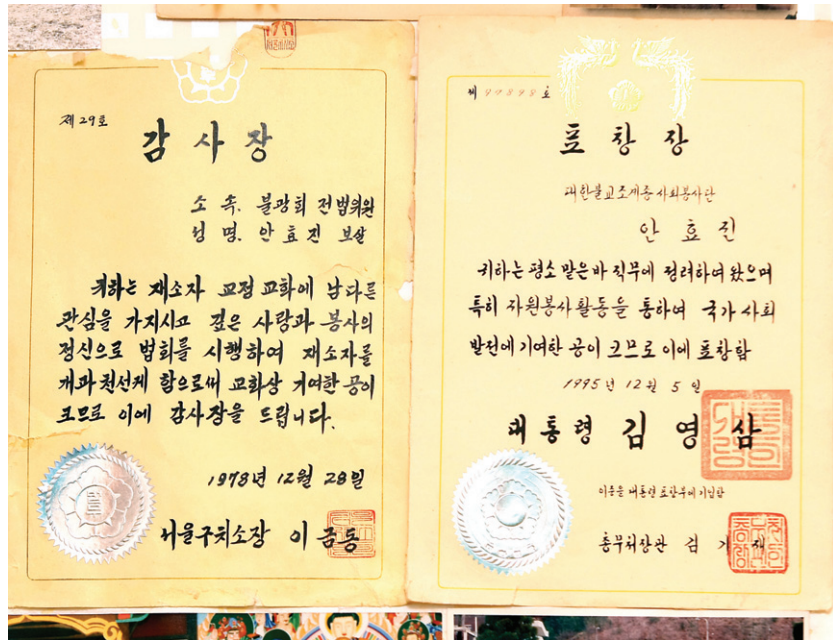


도서 및 주얼리 은제품 구매문의 : (주)한메소프트 02)879-2007 입금계좌 : 신한(100-023-357023) 농협(1282-17-003433) 예금주 : (주)한메소프트 인터넷 상품구매 : 칠성상회 http://shop.7-star.net 에서 해당 상품 검색 후 구매 가능

다음 생에도 봉사 하고파”



안효진 보살은 교화활동 10여 년만에 서울구치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당시 안청정행 보살은 불자로서 최초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외에 두번의 대통령상도 수상했다.



“탐착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인간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충실히 살아가라. 일체 모든 것은 청정하다. 모든 만물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지혜가 있기에 모든 만물의 영장이다.”

안 보살은 어떤 목소리로 그 글자들을 읽어 내려갔다. 안 보살은 처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몰랐다. 떠오르는 대로 무작정 적은 글자가 훗날 불교의 핵심임을 깨닫게 됐다. 그녀는 “죽을 때 이 종이는 꼭 가져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 후로 그녀는 재소자들에게 더욱 많은 부처님 법을 알려줬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들에게 불법을 들려줄까 고민했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그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면 다시 용기가 생겨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왔어요.”

안 보살은 자신에 의해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교화된 재소자들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안 보살은 “부처님에 길에 핀 들꽃에서도 불성이 있다고 했다. 마음이 있으면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된다”며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어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음 생에 업을 잘 다스리면 결국 불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믿음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일까. 이상하게도 안 보살에게는 최고형벌을 받은 재소자들이 많이 따랐다.

“기독교에서도 교화활동을 자주 나왔는데, 이상하게 교도관들이 간첩이나 사형수 등 죄질이 무거운 애들만 저에게 보냈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중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들도 많았어요. 마음이 있는 애들은 결국 저의 진심이 통해요. 나중에 그들이 ‘엄마’라고 부르며 저를 따를 때 정말 행복했죠.”

재소자들과 오랜 세월을 보낸 만큼 그녀에게 사연도 많았다. 그 중 한 사형수는 죽은 후, 가족들 대신 안 보살이 자신의 장례를 치르도록 양도했다.

“그 아이는 항상 저한테 ‘나중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 엄마가 진짜 내 엄마여서 가족으로 살고 싶어요. 그 인연이 안 되면 도반이라도 돼서 행복하게 지내요’라고 말했죠. 막상 장례를 치르려고 보니 저한테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장례를 무료로 진행했죠. 돈이 없어 공동묘지에 가 관리인에게 3평만 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공짜로 내어 줬어요. 그리고 시신을 이동시킬 차량이 없었는데 그때도 사정을 말하니 주인이 공짜로 차를 빌려줬어요. 아마 그 아이가 제가 돈이 없는 걸 알고 도와줬나봐요.”

안 보살은 또 다른 사형수의 이야기도 들려줬다. 그녀는 현재 광주 교도소에 수감된 한 사형수가 쓴 책이라며 《법화경》(금강경)을 보여줬다. “정말 열심히 공부 했나 봐요. 읽어보면 《법화경》과 《금강경》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제가 읽어보곤 정말 기록해서 책들을 복사해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형수가 쓴 책이라면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현장을 지키던 안 보살은 지금은 더 이상 여력이 되지 않아 교도소에 나가지 못한다. 안 보살은 “지금도 애들이 보고싶다”고 말했다. 재소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 안효진 보살은 평생 교화활동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공로를 인정받아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그녀가 받은 표창장 및 감사패만 30개가 넘는다.

“한 때 제가 피부암에 걸려 봉사활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대신 어느 비구니 스님이 재소자들을 돌봐줬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손사래 치셨어요. 그때는 봉사에 미처 있었어요. 정말 즐거웠죠. 당시 조직검사서 악성종양으로 판명돼 길어야 3개월 밖에 못산다고 했어요. 그때 몸을 고치기보다 살아있는 동안 더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는 거 같아요. 욕심을 버리면 정말 편안해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 가르침 받아 받고 고생도 안하고 지내는 거 같아요. 돈을 벌지도 않는데 제 수중에 단 돈 만원이라도 있는 것은 정말 행운이에요.”

안 보살은 자신의 몸에 이상증세가 나타나면 아픔에 집착하지 않고 수행과 봉사활동으로 치유했다. 오른쪽 팔 인대가 끊어져 팔을 쓰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능엄경》을 7시간 동안 사경하며 아픔을 이겨냈다.

“요즘 봉사자들은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 들어요. 하지만 봉사는 돈이 다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과 자비심이예요.”

안 보살은 평생 어느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서 외길을 걸어왔다. 안 보살이 봉사활동의 대대로 불리기 시작하자 자신을 내세워 단체를 결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럴 때 마다 안 보살은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그들과 이념이 맞지 않아 혼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안 보살은 조용히 홀로 하는 봉사가 가장 편하고 즐겁다고 말했다.

간첩·사형수들 많이 교화

지금도 그들이 보고 싶어

건강·돈 욕심버리니 행복해

악성 종양도 수행·봉사로 치유

3개월 밖에 못산다고 했어요. 그때 몸을 고치기보다 살아있는 동안 더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는 거 같아요. 욕심을 버리면 정말 편안해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 가르침 받아 받고 고생도 안하고 지내는 거 같아요. 돈을 벌지도 않는데 제 수중에 단 돈 만원이라도 있는 것은 정말 행운이에요.”

안 보살은 자신의 몸에 이상증세가 나타나면 아픔에 집착하지 않고 수행과 봉사활동으로 치유했다. 오른쪽 팔 인대가 끊어져 팔을 쓰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능엄경》을 7시간 동안 사경하며 아픔을 이겨냈다.

“요즘 봉사자들은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 들어요. 하지만 봉사는 돈이 다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과 자비심이예요.”

안 보살은 평생 어느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서 외길을 걸어왔다. 안 보살이 봉사활동의 대대로 불리기 시작하자 자신을 내세워 단체를 결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럴 때 마다 안 보살은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그들과 이념이 맞지 않아 혼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안 보살은 조용히 홀로 하는 봉사가 가장 편하고 즐겁다고 말했다.

“22세에 어머니를 따라 우연히 절에 갔는데, 그곳에 스님이 절 보더니 저는 전생에도 스님이었고, 현세에도 스님이 될 인연이고 내생에도 스님이 될 운명이라고 하더군요. 아마도 제가 전생에 교만하고 죄를 많이 지은 스님이었나 봐요. 그때는 그냥 흘러들었는데,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현생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지도 모르죠. 저는 다음 생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싶어요. ‘지장 보살’ 처럼요. 그제저의 바람이자 마지막 원입니다.”

글=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소운암을 알았다

멀지 않은 곳에 미술관이 들어섰다. 장소는 석파정을 끼고 등지를 틀었다. 오가며 공사 진행도 지켜 본 터라 개관이 되면 자주 이용해야겠다고 기대에 부풀었다. 타고를 마치고 흥분한 마음으로 미술관을 찾았다. 개관 기념으로 첫 번째 이종섭 화백전이 열리고 있었다. 혼자 간 길이라 머물고 싶은 작품 앞에서 주변 제약이나 일행과 보조 따위는 마음 쓸 필요도 없어 자유로웠다.

작가의 소 그림에 발길이 머물렀다. 육중한 터치 하나하나가 박력이 넘쳐 마치 부사리 같다. 이는 시대의 이름, 개인의 고독과 절망을 표현한 주제의 경향의 자유롭고 강렬한 터치로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작품 해설에 따르면 소는 민족에 대한 자각을 일깨워 주는 모티브이자 작가의 신분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갈등과 고통, 절망, 분노를 대변함과 동시에 희망과 의지, 힘을 상징한다고 했다.

안내 화살표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오르면 석파정에 이른다. 길에서 보면 우뚝 솟아 있는 한옥 한 채가 명절빔을 차려입은 아이의 자세 같아 두 손으로 답석 안고 싶었다. 인왕산 상행길에도 그 한 채만 보일 뿐이었다. 정원에 들어서니 여지껏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한옥 여러 채가 층층을 이루고 있었다.

우선 눈에 익은 채로 발길을 옮겼다. 서서 보고, 마루에 걸터앉아 보아도 좌우의 산이 선연히 들어왔다. 왼쪽엔 백악산, 오른쪽엔 인왕산을 바라보니 대칭이 이상적이었다. 그 중 인왕산에 눈길이 머물렀다. 세칭 치마바위가 지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치마 바위는 이루지 못한 사랑이 야기를 간직하고 풍상을 감내하며 저렇게 의연히 있구나 생각하니 인간의 희로애락이란 한낱 부질없는 유희가 아닌가 반문해 보았다.

중종의 원비 단경왕후 신(愼)씨의 500여 년 전 애절한 사연을 안고 있는 기암괴석이다. 연산군을 몰아 낸 반정공신들이 신수근 형제를 죽이게 된다. 친정아버지 신수근의 죽음이 신씨를 중전 자리에 뚫어놓은 위태롭다고 생각한 반정세력들이 그냥 돌리만했기 때문이었다. 중종이 중전자리를 지켜주기에 억부족인 것을 안 신씨는 곁을 나와 인왕산 아래 옛날 집으로 돌아왔다. 절을 나오며 약속을 한다. 살아있는 동안 인왕산 바위에 분홍치마를 펼쳐 놓고 입을 그리워하며 살겠다고 하며 흐느꼈다.

그 후 매일 아침 일찍 인왕산에 올라 중종과 함께 살던 때 자주 입었던 분홍치마를 걸어 놓았다고 한다. 이 소식이 궁궐에 전해지자 임금도 자주 경회루에 올라 인왕산 쪽을 바라보며 신씨를 그리워하게 된다. 그녀는 또 임금이 사직단에 제사를 지내러 올 때를 기다려 말죽을 쑤어 사직단 정문에서 기다렸다가 임금이 탄 말에게 먹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끝내 궁궐로 돌아오지 못하고 만다. 그녀는 70세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50평생을 인왕산 바위에 분홍치마

를 걸었다고 하니 그 슬픔과 그리움이 오죽했으랴.

이러한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청춘 남녀는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마당에 들어온다. 난 이내 자리를 뒀다. 그 분홍치마는 간데없고 소복한 여인 마냥 흰 구름이 눈앞에 드리운다. 일념즉시무량劫(一念卽是無量劫)이라고 했던가. 새털 같이 가벼운 저 구름, 목화송이 같이 방긋 웃고 있는 백운은 인간의 사고 범주를 훨씬 추월하고 만다. 왜 이렇게 더디게 와 나의 아픈 영혼을 이제야 달래느냐고 한스러워 하는 듯한 그녀의 음성이 귀속거리리는 산세가 전달하는 듯했다. 정마가 활기고 간 자리에 깊숙이 패인 물길 마냥 한 여인의 온갖 슬픔과 회한이 곱이 되어 물길 보다 더욱 깊게 파이고 폭이 넓어지는 듯하였다.

상념을 떨치고 개울물을 자박자박 밟으며 건넜다. 사람 키 높이의 바위가 눈길을 끈다. 그 위쪽으로는 신라시대 탑으로 추정되는 웅장한 3층 석탑도 보였다. 옹기. 탑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이 있었음이 분명한 듯하였다. 그것은 필자의 속단임을 곧 알게 되었다. 바위에 소수

물을 품고 구름이 드리운 초막

속중 때 문신 오제 조정만의 별장

오랜 세월 권력 남용 현상으로 이용

운림암(雲水雲巖)이란 웅장한 글씨가 음각되어 있었다. ‘물을 품고 구름이 밭을 드리우는 초막’이란 뜻이다. 속중 때 문신 오제 조정만의 별장 소운암인 것이다. 다음 사람이 와 보고 탑이 있고 음각된 암(庵)자가 보인다 하여 절터를 찾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암은 초막이나 별장이란 뜻도 있으나 말이다. 탑 또한 최근에 수집가로부터 고가에 구입하였다고 들었다.

오제 이후 철종과 고종 때 영의정 김홍근이 살았는데 삼계동정사(三溪洞精舍)라 하였다. 어느 날 흥선대원군 이희승이 와 보니 군정이 곧 산이라 이름을 석파정(石坡亭)이라고 호도 석파로 하였다고 한다. 소유권은 이희, 이준, 이우에게 전해졌고 한국전쟁 직후 고아원, 병원 등으로 쓰였다고 한다. 권력을 남용한 현상이구나. 보고 들어 새길만한 일이 아닌 듯하여 서쪽 바위에서 흘러내린 계류의 낙수에 눈을 씻고 귀를 씻고 나니 백운의 미소가 해마다.

연꽃과 LED조명과 만남! 수공예 창작 연꽃조명

생활화 흡사한 고무소재의 고급연꽃에 LED조명을 넣었습니다. 주로 법당에 부처님 좌우로 놓여지며, 재가불자님 가정에도, 수행 하시는 스님법전에 놓여집니다. 고무소재의 고급 연꽃으로서 생활화 구분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며 연꽃, 연방, 연잎, 극락조로 잘 조화된 100% 수공예 창작품입니다.

연등과는 달리 연꽃 자체에 LED조명이 켜지므로 신비롭고 영험함을 더해줍니다. 세속이 찌들고 더럽다 하여도 제한품 정갈히 살고픈 불자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제작했습니다. 처염상정 연꽃에 등 밝히시어 부디 성불 하십시오.



주문제작문의 010-2692-4632 / 010-9231-1192
네이버카페 꽃과조명 (http://cafe.naver.com/flowerled)
제휴쇼핑몰 불교TV(btn mall) / 사찰용 종로불교 / 모란불교용품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A/S 불룩 전선 10년 불제해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 6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동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영사용) 탈피이 방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아주 밝은 건전지 초(LED형)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백색

▶방생, 탐몰이, 각종 행사용으로 적합

사람,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